역사문화연구 제 59 집
2016년 8월 31일 37~76쪽
http://dx.doi.org/10.18347/hufshis.2016.59.37

식민지 조선의 농업학교와 지역사회

-이리농림학교(裡里農林学校)를 대상으로-*

마츠모토 다케노리**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식민지기 전라북도에서 중등학교
Ⅲ. 이리농림학교의 설립과정
1. 이리의 연혁
2. 이리농림학교 설립 청원
3. 청원과 모금활동의 중심인물
Ⅳ. 이리농림학교와 지역사회
1. 이리농림학교의 연혁
2. 지원자와 입학생의 출신 지역
3. 이리농림학교 졸업생의 진로와 취직 지역
Ⅴ. 맺으며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4S1A5B8063617)이다.
** 도쿄대학 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교수.
번역자 : 남상현(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일본근현대문학문화 박사과정)

Ⅰ. 들어가며

본 논문에서는 1922년 전라북도 익산군에 설립된 이리농림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설립과정과 지원자, 입학생, 졸업생에 주목하여 이리농립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식민지조선에서 농림학교(농업학교)는 상업학교와 공업학교 등과 함께 중등교육단계의 실업학교 범주에 속하였다. 동일한 중등교육기관인 보통과의 중등학교(고등보통학교 등)나 사범계의 중등학교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실업학교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학생 수를 따지면 실업학교는 고등보통학교 등 보통과의 중등학교와 비견된다.[1] 따라서 실업학교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식민지 조선의 중등교육기관의 분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업학교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학생의 진학동기, 졸업생의 진로, 그리고 입학전형과 학업평가에서의 조선인-일본인 학생간의 민족차별이라는 논점에서 분석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농업학교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라고는 할 수 없다. 농업학교에 관한 연구 성과는 더더욱 한정적이다. 도이 히로쓰구(土井浩嗣)의 연구와 박지원의 연구는 1910년대의 농업학교의 교육내용과 졸업생의 진로를 분석한 것[3]으로 귀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나바 쓰기오(稻葉継雄)는 이리농림학교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

1) 안홍선,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 연구-실업학교 학생 특성과 입학동기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6-2 (2015), 147쪽.

2) 정연태, 「한・일공학 중등학교 졸업생의 일제하 진로와 해방후 변화-충남 강경상업학교의 사례」, 『한국문화』 60 (2012) ; 정연태, 「일제강점기 한・일공학 중등학교의 관행적 민족차별-충남 강경상업학교의 사례」, 『韓國史硏究』 159 (2012); 안홍선, 「일제강점기 중등 실업학교의 민족 공학제 연구」, 『교육사학연구』 25-1 (2015); 안홍선,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 연구」. 안홍선은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에서 식민지기 실업학교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3) 土井浩嗣, 「1910年代の朝鮮における公立農業學校－植民地期朝鮮の勸農体制と關連して－」, 『동북아문화연구』 10 (2007); 박지원, 「1910년대 일제의 중등 농업학교 운영과 조선인 졸업생의 진로」, 『역사교육』 130 (2014).

를 발표하였다.[4] 다만, 분석의 중심이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 논문과는 연구과제가 다르다.

이상와 같은 연구에 따르면 실업학교 졸업 후에 관공서에 취직한 조선인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리농림학교를 분석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따라서 위의 연구를 기반으로 지원자와 입학생의 출신지 및 졸업생의 취직지역에 초점을 두고 이리농림학교라는 장치를 매개로 하여 이리농림학교가 전라북도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혹은 없었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교육기관의 유치는 식민지기의 지역사회가 심혈을 기울인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실행된 보통학교설립운동에 관하여서는 오성철의 연구[5]가 알려져 있다. 또한 고등보통학교 설립에 관하여서는 고석규가 목포고등보통학교를 사례로 들어 조선인 '유지'의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6]을 하였다. 본론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리농립학교는 다른 몇 군데의 후보지와의 사이에서 유치경쟁을 펼쳤었다. 전라북도 호남평야에서 토지를 집적한 일본인 대지주가 주도한 유치운동이 성공하여 입지가 이리로 결정된 것이다. 이들 일본인 대지주와의 상호 관계성을 비롯하여 농림학교 유치의 목적을 분석하겠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지원자와 입학생, 졸업생에 관한 논점을 함께 다루며 설립 후 이리농림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이룬 역할(혹은 그 한계)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식민지기 전라북도에서 중등학교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설립된 실업학교는 대한제국칙령 '실업학교령'(1909년)

---

4) 稻葉継雄,「裡里農林學校について–在朝鮮人「內地人」學校の事例研究」,『國際教育文化研究』9 (2009).
5) 오성철,『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교육과학사, 2000).
6) 고석규,「近代都市 木浦의 '有志'와 木浦高等普通學校 설립운동–기대와 현실의 간격」,『한국사연구』109 (2000).

을 기반으로 하여 1910년 4월에 설립된 공립전주농림학교 및 공립군산보통학교의 병설학교인 군산농림학교였다(〈표 1〉 참조). 조선 '합병' 이후, 1911년 '조선교육령' 제정으로 '실업학교규칙'이 공포되고 같은 해, 위의 두 학교는 각각 '전주공립농업학교' '군산공립농업학교'로 명칭이 바뀐다. 수업연한은 2년으로 규정[7] 하였다. 이후 1912년에는 2개의 간이 실업학교가 설립되고, 1919년까지 그 수는 11개교를 넘었다는 기술이 있다.[8] 간이 수산학교 1개교, 간이 공업학교 1개교, 간이 상업학교 1개교 및 간이 농업학교 7개교의 명칭을 확인 할 수 있다.[9] 나머지 1개교는 불명확하다. 이 11개교 중에서 이후 전주 공업보습학교 및 군산상업보습학교로 개명된 2개교를 제외하고는 이들 간이 실업학교는 입학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학교 재정문제로 인하여 차츰 폐교하기에 이른다.[10] 또,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는 1922년에 군산공립수산학교로 승격된 후, 1929년에 폐교된다.[11]

1921년에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이리농업학교가 5년제의 관립학교로 설립된다. 이 설립과정에 관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분석하기로 하겠다. 이것을 전후로 하는 시기는 전라북도에 중등학교가 많이 설립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주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학교는 1919년의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를 시작으로 20년 고창사립고등보통학교, 26년 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된다.[12] 한편,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학교는 1921년 군산공립고등여학교, 1923년 군산공립중학교, 1924년 전주공립고등여학교와 이리공립고등여학교가 설립된다. 앞서 언급한 군산공립수산학교의 승급을 포함하여 1919-1926년는

7) 朝鮮總督府內務部學務局, 『朝鮮人教育實業學校要覽』(1914), 1-5쪽.
8) 紫藤義雄, 『朝鮮施政二十年史』(朝鮮商工新聞群山支社, 1930), 384-385쪽.
9) 간이 농업학교(남원(南原), 고부(古阜), 금산(錦山), 태인(泰仁), 무장(茂長), 김제(金堤), 함열(咸悅)), 간이 수산학교(군산), 간이 상업전수학교(군산), 간이 공업학교(전주). 『朝鮮人教育實業學校要覽』 11-12쪽 및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3월 25일자에 의거한다. 모두 수업연한은 1년이다.
10) 『朝鮮施政二十年史』, 384-385쪽.
11)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6월 17일자 및 1929년 4월 16일자 참조.
12) 『朝鮮施政二十年史』, 381-382쪽.

전라북도에 중등학교의 설립이 잇따르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간이실업학교의 경우에는, 도내의 몇 개의 군에서 분산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간이실업학교 이외의 실업과, 보통과 중등학교 11개교의 입지장소는 전주(4개교)와 군산(4개교)로 집중하여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리의 2개교는 이에 따르는 입지건수인 것이다. 고창사립고등보통학교는 당시 이 지역에서 토지집적을 행한 일본인 지주인 마스토미 야스자에몬(桝富安左衛門)의 기부를 기반으로 설립 된 학교이고,[13] 관공립학교로 설립된 다른 중등학교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리관립농업학교는 이리에 설립된 최초의 중등학교였다. 동시에 전라북도의 전주 및 군산 이외의 도시에 설립된 최초의 관공립중등학교였다. 이리농림학교설립의 다음해인 23년에 군산공립농업학교는 정읍으로 이전하며(정읍공립농업학교), 같은 해, 그 대신 군산에 군산중학교가 설립된다.

〈표 1〉 전라북도의 중등학교 일람(1937년 현재)

명칭		설립 연도	수업 연한	조선인 학생 (a)	일본인 학생 (b)	합계 (c=a+b)	1학년 평균 학생 수	조선인 학생비율 (a/c)
공립실업학교	전주농업	1910	5년	215	40	255	51	84.3%
공립실업학교	정읍(전 군산) 농업	1910	3년	151	4	155	52	97.4%
공립실업학교	전주공업보습	1916	2(+1)년	102	15	117	39	87.2%
공립실업학교	군산상업보습	1918	2년	66	29	95	48	69.5%
공립고등보통학교	전주	1919	5년	469	20	489	98	95.9%
사립고등보통학교	고창	1920	5년	347	0	347	69	100%
공립고등여학교	군산	1921	4년	15	250	265	66	5.7%
공립실업학교	이리농림	1922	5년	271	304	575	115	47.1%
공립중학교	군산	1923	5년	47	442	489	98	9.6%

13) 『朝鮮施政二十年史』, 381쪽.

명칭		설립 연도	수업 연한	조선인 학생 (a)	일본인 학생 (b)	합계 (c=a+b)	1학년 평균 학생 수	조선인 학생비율 (a/c)
공립고등여학교	전주	1924	4년	1	197	198	50	0.5%
공립고등여학교	이리	1924	4년	3	200	203	51	1.5%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전주	1926	4년	259	0	259	65	100%
공립실업학교	김제기예여자학교	1930	3(+1)년	15	102	117	29	12.8%
공립실업학교	남원농업전수	1936	3년	67	0	67	34	100%
공립실업학교	금산농업실습	1936	1년	25	0	25	25	100%
공립중학교	전주	1937	5년	11	88	99	99	11.1%
공립실업학교	원주농업실습	1937	1년	50	0	50	50	100%
공립실업학교	부안농업실습	1937	1년	50	0	50	50	100%
공립실업학교	옥구농업실습	1937	1년	50	0	50	50	100%

자료 : 全羅北道教育會,『全羅北道教育及宗教要覽』, 1938, 65-68쪽
주: ① 남원농업전수학교의 학생 수는 2학년 분을 가져옴.
② 전주공업보습학교 및 김제기예여학교의 +1학년은, 각각 연구과와 고등과.

1926년 이후 전라북도의 중등학교 설립은 정체시기로 접어든다. 1936년까지의 10년 동안 신설된 학교는 1930년 김제기예여자학교 뿐이었다. 이 동안, 앞서 언급하였듯 군산공립수산학교는 폐교된다. 1936년을 기점으로 다시 많은 수의 중등학교가 설립된다. 1937년에는 전주에 공립중학교가 설립된다. 또, 1936-37년의 2년 동안 5개교의 농업전수학교, 실업학교가 설립된다. 이 5개교는 1910년대의 농업간이학교가 그랬듯이, 전주와 군산 이외의 도내 각 군에 입지가 분산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2〉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라북도 공립초등학교(공립소학교 심상과(尋常科), 공립보통학교) 졸업생의 진로현황이다. 1916년 이후 4년마다의 평균치를 표시하였다.(공립소학교심상과의 경우, 1916-1919년의 수치가 없다) 공립소학교 심상과의 수치는 일본인의, 공립보통학교의 수치는 조선인의 경향을 각각 내었다고 파악하여도 지장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표 2〉 전라북도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로현황

				1916-19	1920-23	1924-27	1928-31	1932-35	1916-19	1920-23	1924-27	1928-31	1932-35
공립소학교 심상과	남자	고등과 입학			116	139	149	149		55.6%	48.0%	42.6%	38.9%
		상급학교 입학	중학교		52	77	103	113		24.7%	26.6%	29.4%	29.5%
			실업학교		18	43	54	54		8.4%	14.8%	15.4%	14.0%
			그 외		7	6	2	11		3.2%	2.0%	0.6%	2.9%
			소계		192	264	308	327		36.4%	43.3%	45.4%	46.4%
		가사종사			14	15	21	31		6.5%	5.1%	5.9%	8.1%
		그 외			3	10	22	25		1.6%	3.5%	6.1%	6.5%
		합계			208	289	350	383		100%	100%	100%	100%
	여자	고등과 입학			86	107	92	128		43.7%	40.2%	30.6%	34.8%
		상급학교 입학	중학교		71	132	161	165		35.8%	49.9%	53.3%	45.0%
			실업학교		0	2	7	16		0.1%	0.6%	2.4%	4.4%
			그 외		17	2	9	10		8.6%	0.7%	2.8%	2.7%
			소계		174	242	268	319		44.6%	51.1%	58.6%	52.0%
		가사종사			18	21	18	32		9.0%	7.7%	6.1%	8.8%
		그 외			5	3	15	16		2.7%	1.0%	4.8%	4.4%
		합계			197	265	301	367		100%	100%	100%	100%
공립보통학교		상급학교 입학	관립학교	33	68	2	6	22	4.9%	6.0%	0.0%	0.1%	0.4%
			공립학교	87	89	277	1,166	1,454	13.1%	7.9%	7.3%	25.0%	26.4%
			사립학교	21	54	107	113	164	3.1%	4.9%	2.8%	2.4%	3.0%
			소계	141	210	385	1,285	1,639	21.1%	18.8%	10.1%	27.6%	29.8%
		가사종사		395	673	2,285	2,779	3,595	59.2%	60.2%	60.0%	59.6%	65.3%
		관공서 교원회사 등 취직		54	58	277	476	210	8.1%	5.2%	7.3%	10.2%	3.8%
		그 외		77	176	864	122	58	11.6%	15.7%	22.7%	2.6%	1.1%
		합계		666	1,117	3,811	4,661	5,502	100%	100%	100%	100%	100%

자료: 全羅北道教育會, 『全羅北道教育及宗教要覽』, 1938.

주: 원자료에서 각 항목의 합계와 합계란의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 표에서는 각 항목의 합계를 합계로 하여 표기하였다.

먼저, 졸업생 수의 추이에 주목하면 공립소학교 심상과의 경우는 1920-23년과 32-35년과의 사이에서 남녀 모두 약 1.8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립보통학교의 경우는 동일한 기간에 있어서 5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남녀별 수치는 불명). 3·1독립운동 이후 조선인 사이에서 '교육열'이 높아져 초등학교 입학지원자가 급증하였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14] 이 표에서의 수치도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졸업생 진로처에 관하여서는 공립소학교 심상과 남자의 경우, 절대치로는 고등과 입학자에 비하여 상급학교 입학자의 증가속도가 빨랐다. 그 결과, 구성비에서 고등과 입학 비율이 감소하고 상급학교 입학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립소학교심상과 여자에서는 1928-31년에는 남자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는 하였으나, 이후 32-35년의 기간에서는 이제까지의 경향과는 반전을 이룬다. 남자, 여자 모두 공립소학교 심상과 졸업 후는 고등과 혹은 상급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80%를 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하여 공립보통학교 졸업자의 60%정도는 모든 시기를 통틀어서 가사에 종사하였다. 상급학교로의 진학자에서는 절대적인 인원수에 있어서 일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기록하는 한편, 구성비로는 1924-1927년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으로 바뀌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10년부터 20년대 전반에 걸쳐 전라북도의 중등학교 설립이 잇따랐다는 것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들 중등학교가 전라북도 초등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희망자를 수용하는 곳으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립보통학교 졸업생이 급증하게 되자 그들에게 중등학교는 '좁은 문'이 된 것이다. 1920년대 후반 이후 30년대 전반까지는 전라북도의 중등학교 신설은 정체된 시기였다. 같은 시기에는 졸업생 중에 상급학교 입학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과 함께 '그 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중등학교 진학경쟁의 삼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1928-1931년의 시기 이후, 이전의 기간에 비하여 상급학교 입학자 비율이

14)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참조.

급증하였다. 전라북도 내에서의 수용이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도외의 중등학교로의 진학이 증가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15)]

〈표 1〉로 돌아가서, 전라북도 중등학교에 있어서의 이리농림학교의 특징을 확인해보자. 1937년 현재, 5년제 중등학교는 6개교(보통과 4개교, 농업과 2개교)였다. 이리농림학교의 학생 수는 575명으로, 6개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조선인-일본인 별 학생 구성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중등학교는 어느 쪽이든 구성비가 80%이상을 점하였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군산상업보습학교 및 이리농림학교의 2개교뿐이었다. 특히 이리농림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성비가 거의 반반이라는 점에서 전라북도 중등학교의 예외적인 존재였다.

Ⅲ. 이리농림학교의 설립과정

1. 이리의 연혁

전라북도 서부에는 조선반도 굴지의 곡창지대로 알려진 호남평야가 펼쳐져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가르는 금강 중하류와 그 남쪽을 흐르는 만경강 중하류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호남평야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은 개항을 계기로 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호남평야를 배후지로 하는 군산은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곡류 수출항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보다 내륙에 위치한 이리는 1911년 경성과 전라남도 목포를 잇는 호남선의 개통을 계기로 군산보다 늦게 도시를 형성하게 된다. 이리에 호남선 군산지선의 분기점이 놓이

15) 〈표 1〉의 학생 수는 1937년의 것이지만, 이 수치를 1930년과 같은 수라고 가정하여 1930년 시점에 존재한 중등학교의 1학년 당 평균재적 학생 수를 산출해본다면, 조선인학생(남녀) 460명, 일본인 남학생 181명, 일본인 여학생 188명이다. 〈표 2〉의 1928-31년간의 평균 상급학교 입학생의 수와 비율을 구해보자면, 일본인 남녀 학생이 각각 59%(181/308), 70%(188/268)이라는 점에 반하여 조선인은 36%(460/1,285)에 머무른다. 특히 조선인에게 중등학교진학이 '좁은 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전라북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본의 상인과 지주의 이주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그리고 1911년에는 익산군의 군청이 금마읍(金馬邑)에서 이리역이 있는 남일면(南一面)으로 이동하여, 1914년에 남일면과 동일면(東一面)이 통합하면서 익산면이 되었다. 1931년은 익산읍으로 승격되어 이리읍으로 개명된다. 게다가 1914년에는 이리와 전주를 잇는 사립 경편철도와 전북철도가 개통하고(1927년에 국유화가 되면서 궤도도 표준궤로 개량되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1925년 현재의 익산면 인구는 일본인 3,947명, 조선인 9,263명이다.[16]

호남평야에서는 일본인 대지주가 토지집적을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군산 근교에서 토지집적을 시행하였으나, 도로, 철도망의 정비 및 1900년대 말의 한국인 의병투쟁에 대한 관헌(官憲)의 탄압이 강화됨에 따라 이리 근교의 내륙 부근까지 일본인 지주가 토지집적을 시행한다. 호남평야에 펼쳐진 전라북도 서부의 각 군에는 일본인 대주주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혹은 농장 사무소가 소재하였다.). 1926년, 100정보 이상을 소유하는 일본인 도내 지주 49명(도외 지주는 3명) 중, 익산(17), 옥구(9), 김제(9), 전주(5)의 4군에 집중하여 거주하였다. 4군을 합쳐 40명에 이른다. 이에 반하여 조선인 대지주 (총 87명)의 경우는, 익산군(12)에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일본인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그 이외에는 전주군(16)이 많고, 또, 남원군(8) 등 내륙에 위치한 군을 포함하여 각 군에 분산적으로 주거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도외에 거주하는 부재지주(13)도 많았다.[17]

다른 사료를 보면 1927년, 익산군 100정보 이상을 소유한 일본인 지주 15명 중, 11명은 익산면 및 이에 인접한 오산면, 북일면, 춘포면에 거주하였다(혹은 농장이 소재하였다). 또한 이 4군데의 면에서는 일본인에 의한 토지세 납입액이 조선인의 그것을 상회한다(1927년 현재).[18] 이에 반하여 조선인 100정보 이상

16) 山下英爾, 『湖南宝庫裡里案內』(1927), 8쪽.

17) 「全羅北道地主所有地調(1926년 8월 현재)」(韓國農村経濟研究院, 『農地改革時被分配地主 및 日帝下大地主名簿』(1985))을 참조. 소유면적은 논과 임야 그 외의 합계(위탁 관리지 면적도 포함). 본문 ( )안는 각각 군 내의 지주 수.

18) 木原壽, 『益山郡事情』(1928), 34-36쪽.

소유자 7명의 거주지(농장 소재지)는 춘포면의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앞의 4면 이외의 면이었다. 일본인이 이리의 근교에 집중적으로 토지집적을 시행하였다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2. 이리농림학교 설립 청원

앞의 절에서 언급하였다시피, 1910년에 전주와 군산에 공립농업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이것은 2년제(이후 3년제)의 실업학교였다. 이리농림학교 설립청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가타기리 와조(片桐和三)는 '우리 전라북도에 갑종(甲種) 농림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大正 4년(1915년) 쯤부터 영농자 단체가 열렬히 주창하고, 청원서도 3번 제출하였으나 시기에 맞지 않아서인지, 당국에서 고려해주지를 않았다.'고 언급하였다.[19] 그 이후 1918년 9월, 전라북도 실업자 회동에서 전라북도에 갑종 정도의 농업학교를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며, 22명의 발기인가 협정을 작성하였다. 다음해 1919년 2월에는 발기인 모임이 이리 학교조합 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갑종 농업학교 설립을 목표로 기부금 10만엔을 총독부에 제공하고, 1920년부터 관립학교로서 개교하기 위하여 청원과 기부금 모집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12명의 상무위원이 선출되었다.

1920년 12월, 조선 총독부에서 관립 농림학교 설치의 계획이 있으며, 경성, 대구, 대전, 이리가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마무라 이치지로(今村一次郎)를 통하여 전해들은 상무위원은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요 부지와 건축비 20만엔을 기부할 것으로 자금모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도지사가 총독부에 그

19) 裡里公立農林學校校友會, 『裡里公立農林學校沿革寫眞帖』(1935), 5쪽을 참조. 동일하게 이리 농림학교 설립 청원의 중심인물이었던 이마무라 이치지로(今村一次郎)는 '그것은(1920년쯤의: 인용자) 4,5년 전, 이리에 중학교 정도의 학교 설립 희망에 불타, 농장 및 유지 사이에서 5만 엔 정도의 기부를 받은 적 있다.'(동일 책, 4쪽)고 언급하고 있다. 농업과에 한정하지 않고 보통과의 가능성도 포함하여, 10년대 중반쯤부터 '중등 정도의 학교'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건을 알리고 전라북도에 관립농림학교 설치를 서로 상의하였다. 그 후 1921년 1월에는 익산군청에서 발기인를 비롯하여 '내지인 영농자의 주모자들'이 회동하여 건축비 20만엔과 소요 부지 20만평의 기부에 관하여 협정하고, 총독부에게 26명의 청원을 적은 설치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달에는 다시 모임이 개최되어 기부금 배당과 실행위원에 관하여 협의하였다.[20]

1918년 9월에 선출된 발기인, 1919년 2월에 선출된 상무위원, 1921년 1월에 청원자 및 1921년 2월 선출된 실행위원 명단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들 4건에 모두 관련된 인물 중, 조선인은 화성농장주인 백인기(白寅基) 한 명 뿐이다.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농장관리자인 아오타 다케지(青田竹治)가 익산군(이리)의 일본인 유력자로서 4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21] 또한, 이들 4건에 관련된 인물 총 33명(농장주와 농장관리자는 동일인물로서 산정) 중, 26명은 소유면적이 100정보를 넘는 대지주였다. 이리 농림학교 설립 청원은 기본적으로 일본인 대지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26년의 대지주 명부와 대조해 보면, 이 4건 모두에 관여한 25명의 일본인 대지주는 1,000정보 이상을 소유한 일본인 총 10명 중 9명, 500-1,000정보 소유 일본인 지주 총 12명 중 7명, 100-500정보 이상 소유 일본인 지주 28명 중 9명이 이에 속하였다.[22] 특히 1,000정보를 넘는 거대 일본지주를 중심으로 하여 유치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6명의 대지주의 거주(농장사무소 설치) 군에 착목하자면, 익산 8(그 중 조선인 지주 1), 김제 7, 옥구 5, 정읍과 부안 각 2, 전주와 군산 각 1명 이었다.[23] 앞서 나타낸 일본인 대지주의 군별 분포와 겹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리(및 익

20) 이상의 경과는 『沿革寫眞帖』 4, 23-24쪽을 참조.

21) 어느 사료에서는 '저명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에 열의가 있고, 이리 금융조합장, 동 학교 조합 의원 등을 거친 노력을 마지않는 신사'라고 소개되어 있다(『湖南宝庫裡里案內』, 93쪽 참조).

22) 이상, 全羅北道, 『內鮮人地主所有地調』 (1928)(한국 농림경제연구원, 『農地改革時被分配地主 및 日帝下大地主名簿』)를 참조.

23) 동척(東拓) 김제지점은 1921년에 지점을 이리로 옮긴다(『湖南宝庫裡里案內』, 88쪽 참조). 여기에서는 소재지를 김제로 책정하고 있으나, 여러 군에 걸쳐 넓게 소유지가 분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척지점의 소재군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 있다.

산군)에 거주하는(혹은 농장이 소재하는) 일본인 대지주뿐 아니라, 도내에 거주하는(혹은 도내에 농장을 소유하는) 일본인 대지주가 이리농림학교 설립에 깊이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1921년 1월의 '청원서'에는 발기인들은 아래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조선의 보고와 같은 전라북도의 농산업 진흥의 기운에 있어서 가장 귀감이 되는 것은 조선 특수의 농장경영과 경종의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스스로 농업에 종사하며 지방에 모범을 보이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관청 혹은 농장 등에 있으면서 지도하는 자는 대부분 일본의 농업학교 출신자로 조선농사에 정통하기 위하여서는 이후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조선에서 현재 있는 농업학교 출신자는 실력이 부족하는 뿐이다. 수원농림전문 학교는 소재지가 조선의 북쪽에 편향되어있고 또, 학생의 수용에 한계가 있다. 조선 남쪽 지방의 자제들의 농업교육 상 일대 결함이 여기에 있다.[24]

〈표 3〉 이리농림학교 설치에 관련된 발기인 일람

1918년 9월	1919년 2월	1921월 1월 1일		1921년 2월 (실행위원)	소유+위탁면적 (26년)	거주지
		동척김제농장 (東拓金堤農場)	야스이 료 (安井亮)		10,112.5	김제
구마모토 리헤이 (熊本利平)	구마모토 리헤이	구마모토 농장 (熊本農場)	이노우에 쇼타로 (井上正太郎)		3,358.0	정읍
사토 후쿠타로 (佐藤福太郎)	사토 후쿠타로	후지농장 (不二農場)	사토 후쿠타로		2,847.0	익산
우시오 히사오 (牛尾壽郎)		다키농장 (多木農場)	우시오 히사오		2,292.9	김제
야마시타 도키히코 (山下時彦)	야마시타 도키히코	히가시야마 농장 (東山農場)	모리타 다다히코 (森田唯彦)		1,599.4	전주
기타오 에이타로	기타오 에이타로	이시카와현 농장	이와후지 우헤		1,571.9	김제

24) 『沿革寫眞帖』, 23쪽에서 인용.

1918년 9월	1919년 2월	1921월 1월 1일		1921년 2월 (실행위원)	소유+위탁면적 (26년)	거주지
(北尾榮太郎)		(石川縣農場)	(岩藤宇兵衛)			
노지리 안 (野尻安)	나가하라 구니히코 (永原邦彦)	호소카와 농장 (細川農場)	나가하라 구니히코		1,430.6	익산
		화성농장 (華星農場)	아오타 다케지 (青田竹治)	아오타 다케지	1,249.9	익산
시마타니 야소하치 (嶋谷八十八)	시마타니 야소하치		시마타니 야소하치		1,231.9	옥구
오하시 요이치 (大橋興市)		오하시 농장 (大橋農場)	야마자키 마스헤이 (山崎增平)	야마자키 마스헤이	1,112.6	익산
오쿠무라 다케자부로 (奥村竹三郎)		아베농장 (阿部農場)	오쿠무라 다케자부로		918.0	김제
마스도미 야스자에몬 (枡富安左衛門)					658.0	익산
				사나다 주스케 (眞田壽助)	650.0	익산
가와사키 도타로 (川崎藤太郎)	가와사키 도타로	가와사키 농장 (川崎農場)		마키로 다로 (槇瀧太郎)	632.6	옥구
오쿠라 요네키치 (大倉米吉)			오쿠라 요네키치		583.1	군산
이마무라 이치지로 (今村一次郎)	이마무라 이치지로		이마무라 이치지로	이마무라 이치지로	535.3	익산
미야자키 게이타로 (宮崎佳太郎)	미야자키 게이타로		미야자키 게이타로		506.3	옥구
아카기 미네타로 (赤木峰太郎)			아카기 미네타로		407.9	정읍
하시모토 나카바(橋本央)			하시모토 나카바		296.9	김제

1918년 9월	1919년 2월	1921월 1월 1일		1921년 2월 (실행위원)	소유+위탁면적 (26년)	거주지
모리타니 겐이치 (森谷元一)			모리타니 겐이치		252.0	옥구
가타기리 와조 (片桐和三)	가타기리 와조		가타기리 와조	가타기리 와조	208.0	익산
가와노 나가히사 (川野長久)			가와노 나가히사		198.5	부안
			이노우에 고이치 (井上工一)		191.7	김제
스즈키 진자부로 (鈴木仁三郎)			스즈키 진자부로		147.0	부안
시부야 젠사쿠 (澁谷善作)					141.3	옥구
			사카이 신조 (坂井信藏)	사카이 신조	129.7	익산
오와다 신지 (大和田眞治)	오와다 신지					
	다나카 도쿠타로 (田中德太郎)					
		동진수리조합 (東津水利組合)	오쿠보 이타루 (大久保到)			김제
			구라다 미쓰조 (倉田光藏)			익산
				오오기 요네스케 (扇米助)		(익산)
				오오사와 진타로 (大澤甚太郎)		(익산)
				다나카 도미지로 (田中富次郎)		(전주)

자료 : 『沿革寫眞帖』, 23-24쪽, 全羅北道, 『內鮮人地主所有地調査』에서 작성
주: ① 소유+위탁면적은, 전답+기타 면적을 표지.
② 화성농장 면적은 농장주 백인기의 소유면적을 표시.
③ ( ) 표기의 거주지의 출전은 본문을 참조.

전라북도 지역의 농업경영자 및 관청과 농장의 농업기술자가 '내지'농업학교의 출신자(즉, 여기서는 일본인을 염두에 둔다.)이기 때문에, 조선농업에 정통하기 위하여서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과 조선 내의 농업학교 출신자(즉, 여기서는 조선인을 염두에 둔다)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의 일본인 대지주들은 기존의 농업학교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수원농림전문학교에 비견할 정도의 관립농업학교를 유치하고, 기술개선과 보급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에 공헌할 인재의 육성을 도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때, 수원농림전문학교가 '조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설득력이 부족한 지역구분론을 전제로 하면서 그와 함께 지리적인 분업관계를 강조하면서 '조선 남쪽 지방 농가 자제'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교육을 과제로 들고 있다. '청원서'에서 든 명분론의 문맥을 걸러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전라북도 일본인 대지주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를 주창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도내 각 군의 일본인 대지주가 이리농림학교설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청원과 모금활동의 중심인물

이리농림학교 설립과정에서 이리와 익산 군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먼저, 주목해야하는 인물로서 이마무라 이치지로와 가타기리 와조를 들 수 있다. 〈표 3〉에서 나타낸 4건에 모두 관여한 인물은 이 두 명뿐이다. 그리고 이 두 명은 ①소유면적 1,000정보를 넘는 대지주가 수 없이 많이 존재한 전라북도 일본인 지주 중에서는 소유면적은 중규모 정도이다. ②농장경영자 본인이 익산군에 거주하는, 이른바 '재촌지주'이다. ③이리만이 아니라, 근교의 춘포면 대장촌리(이마무라), 황등면(가타기리)에 살고 있다. ④도회의원과 학교조합

관리자 등의 공직에 역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25] 그런데 '이리의 장래에 대한 소견'이라는 테마에 관하여 한 '어느 시민'이 이리의 '관리자 자신은 상주하는 지역일 뿐, 토지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도 장주(場主)를 위해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언급하였다.[26] 그 가운데 (이리)농림학교 건축 기부 모집 당시도, 농장관리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빠졌다'는 것을 실례로 들고 있다. '부재'하는 일본인 대지주와 그 밑에서 일하는 농장관리자와는 달리, '재촌지주'였던 이마무라와 가타기리는 농업기술 개량을 위하여 인재양성에 힘쓰는 것에 관하여 농장 경영자로서 개인적 이익과 일본인 지역 사회의 공직자로서의 기대되는 역할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다룰 인물은 오하시 요이치이다. 기후현(岐阜縣) 출신의 오하시는 〈표 3〉에서 보이다시피 전라북도에 1,000정보 넘는 토지를 소유한 전형적인 일본인(부재) 대지주였다. 오하시의 특징은 '이리시 내의 주택지의 대부분은 그의 농장의 소유지로, 이리의 오하시인가 오하시의 이리인가라고 불릴 정도이다'[27]라고 한다. 오하시의 경우, 농장경영과 함께 이리의 시가지 경영이라는 두 가지 경영을 축으로 삼고 있었다. 1911년에는 오하시 농장 대표자 에다요시 모토노부(枝吉元信), 오오기 요네스케, 다나카 도미지로 3명이 제안자가 되어 '이리번영조합'이 만들어 졌다(에다요시가 조합장). 그리고 이 조합은 '시가지 계획, 도로개착(開鑿), 교육, 위생 경비기관 등의 시설, 그 외 관공서의 이전운동 등에 공헌하였다'고 한다. 익산군청, 우체국, 헌병분대 등이 이리로 이전한 것도 이들의 운동의 성과였다고 평가된다.[28] 철도의 요충지로서 위치한 것을 기회로 삼아, 오하시들은 관공서의 유치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리의 시가지 개발을 추진하고, 소유지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방책을 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5) 한국 역사 정보 통합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
26) 『湖南宝庫裡里案內』, 56쪽.
27) 『湖南宝庫裡里案內』, 87쪽.
28) 『湖南宝庫裡里案內』, 15-16쪽.

1920년 12월에 조선총독부의 관립농림학교 설치계획이 상무위원에 전달되었으나, 그 당시 가타기리 와조는 오오기 요네스케로부터 '오하시 요이치옹이 이리를 위한 기념사업에 5만엔 정도를 투자하고자 한다'는 전달을 받고, 이를 다른 위원에게 전하여 설립지를 이리로 정하고 오하시의 승인을 얻을 것을 제안하였다.[29] 일본인 대지주의 집주도시인 김제나 옥구 등이 아닌 이리에 농림학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 도내의 일본인 지주들이 합의에 이르기 까지는 오하시의 존재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리농림학교설립에 기부금 총액은 14만 6천엔이었는데, 그 중 오하시의 기부는 3만 5천엔이었다.[30]

또 한명 다루어야 한 인물이 사카이 신조다. 사카이는 토지소유면적은 100정보를 넘는 정도로, 일본인 대지주 중에서는 비교적 소규모의 그룹에 속해 있었다. 한편, '이리 제1인자로서 도 평의원, 학교조합, 면 협의회원, 소방 조장, 이리 시민회장 등 여러 공직에 추천받은' 인물이었다.[31] 여기서 언급된 이리 시민회는 이리번영조합과 마찬가지로 관공서 유치를 계획하는 등 이리 시가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32] 앞의 제시한 가타기리의 회상에 의하면, 사카이는 농림학교가 아닌 '중학교에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33] 이제까지 다룬 오하시, 이마무라, 가타기리와는 달리, 초기의 단계에서 청원에 직접 관여한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에 유치가 확실시 되어 모금활동이 구체화된 단계가 되자 사카이는 실행위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이리 시민회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마무라, 가타기리, 사카이 이외의 실행위원회에 주목하자면 오오기 요네스케와 다나카 도미지로가 있는데, 이들은 앞서 언급하였듯 이리번영회의 설립에 관여하였다. 오오기 요네스케는 이리에 사는 지주 겸 실업가였다. 다나카는

29) 『沿革寫眞帖』, 5쪽.
30) 『湖南宝庫裡里案內』, 19쪽.
31) 『湖南宝庫裡里案內』, 92쪽.
32) 1924년에는 세무감독국의 유치를 위하여 이리시민회가 결의를 시행하여 전주와 쟁탈전을 벌였다(「朝鮮新聞」 1924.1.23.일자 참조).
33) 『沿革寫眞帖』, 5쪽.

전북일일신문사의 임원이었다.[34] 오오기는 이리시민회의 주요회원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35] 마찬가지로 오하시농장관리자인 야마자키 마스헤이도 이리번영조합과 이리시민회의 주요회원이었다.[36]

이마무라와 가타기리라는 익산군의 유력한 '재촌'일본인 대지주라는 계열과, 이리시가지 개발을 지향하는 일본인 유력자에 의한 단체(이리 번영조합, 이리시민회)의 대표라는 계열이 통합하여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들 위원이 설립한 기업에 대하여 경영진으로서 혹은 주주로서 서로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7] 각종시설의 유치운동과 기업활동을 통하여 형성한 일본인 유력자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를 전제로 실행위원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라에 관해서는 일본 본국 거주자와의 관계성을 이용한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실행위원이 모금을 주된 목적으로 일본국내 거주중이면서 전라북도에 토지 집적한 일본인 대지주을 방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키구메지로(多木粂次郎), 오하시 요이치, 오하시 사부로(大橋三郎)(오하시 요이치의 장남), 모로토 세이로쿠(諸戸清六), 구마모토 리헤이, 오쿠라(大倉) 남작가

34) 한국역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

35) 「朝鮮新聞」 1924.1.23일자를 참조. 앞에서 제시한 세무감독국 유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리시민회의 결의자 중 오오기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36) 『湖南宝庫裡里案內』, 16-17쪽 및 주26을 참조.

37) 이리농림학교 설립 이전에 설립된 회사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한국역사정보 데이터 베이스. 원자료는 『朝鮮銀行會社要錄』 매년판. 실행위원관계자 만을 열거하여 기입). 조선잠업(朝鮮蚕業)(1919년 설립: 1921년 현재): 이사 구라다 미쓰조, 가타기리 와조, 이마무라 이치지로, 사카이 신조, 오오기 요네스케, 야마자키 마스헤이. 임익양어(臨益養魚)(1919년 설립: 1921년 현재): 사장 가타기리 와조, 이사 구라다 미쓰조, 오오기 요네스케. 전북산업(全北産業)(1920년 설립: 1931년 현재): 사장 이마무라 이치지로, 전무이사 가타기리 와조, 아오타 다케지, 야마자키 마스헤이, 간사 오오기 요네스케, 사카이 신조, 대주주 가타기리, 이마무라, 야마자키, 아오타. 황등산업(黃登産業) (1920년 설립: 1939년 현재): 사장 이마무라 이치지로, 전무이사 가타기리 와조, 이사 다케다 아오타, 간사 오오기 요네스케, 사카이 신조. 전북철도(全北鐵道)(1914년 설립: 1923년 현재): 이사 야마자키 마스헤이, 대주주 야마자키, 이마무라 이치지로. 군산흥업(群山興農)(1919년 설립: 1927년 현재): 이사 이마무라 이치지로, 감사 가타기리 와조. 또한, 조선잠업 사장은 오하시 요이치. 이리농림학교설립 직후, 임시 교사로서 조선잠업의 건물을 이용하였다(『沿革寫眞帖』, 23쪽 참조).

(기하치로(喜八郎)), 호소가와 후작가(호소가와 농장), 이와사키(岩崎) 남작가(히가시야마 농장), 동양척식회사본사, 가와사키 도타로이다.[38] 이 중, 모로토(익산군, 815.9정보), 오쿠라(옥구군, 451.2정보)는 위의 4건의 활동에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지주였다. 오쿠라, 호소가와, 이와사키 가를 비롯하여 동척본사의 방문을 기점으로, 구마모토 리헤이의 '친절한 지도와 배려'가 있었다고 한다. 구마모토 리헤이의 인맥을 계기로 이러한 인물과 기관이 방문하였다는 것은, 기부의 의뢰뿐 아니라 일본의 정계와 일본 국내 및 조선총독부 관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키 구메지로와는 일본체재의 첫날과 마지막 날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 중의원 의원(정우회(政友會))였던 다키의 발언력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컸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Ⅳ. 이리농림학교와 지역사회

1. 이리농림학교의 연혁

1922년에 설립된 이리농립학교는 당시 농업학교로서는 유일한 관립학교였다. 또한, 조선 전체의 농업학교 재적자는 조선인이 약 90%를 점하는[39](〈표 4〉 참조) 경향임에도, 이리농림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재적자각 각각 반반을 점하는 유일한 '내선공학(內鮮共學)'농업학교였다. 이와 함께 식민지 조선에서 5년제 농업학교의 시초이기도 하였다. 1919년까지는 모든 농업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이었다. 1920년에 일부의 농업학교가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이리농림학교 설립을 계기로 1923년 이후, 수업연한 3년의 농업학교 중 몇 개 학교가 수업연한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

---

38) 『沿革寫眞帖』, 4-6쪽 참조.

39) 실업학교 중에서 상업학교, 공업학교의 조선인 재적비율은 각각 50%정도, 2-30%로 농업학교의 비율에 밑돌고 있다(안홍선, 「일제강점기 중등 실업학교의 민족 공학제 연구」, 62쪽 참조).

〈표 4〉 식민지조선의 농업학교수와 학생수의 추이

	학교 수	조선인 학생수	일본인 학생수	합계	조선인 비율	5년제 농업학교					
						조선인 지원자	일본인 지원자	조선인 입학자	일본인 입학자	조선인 경쟁률	일본인 경쟁률
1912	15	941	0	941	1.00						
1913	14	979	0	979	1.00						
1914	15	1,101	0	1,101	1.00						
1915	15	1,191	31	1,222	0.97						
1916	15	1,268	56	1,324	0.96						
1917	15	1,359	70	1,429	0.95						
1918	17	1,388	60	1,448	0.96						
1919	17	1,292	42	1,334	0.97						
1920	17	1,241	68	1,309	0.95						
1921	19	1,663	101	1,764	0.94						
1922	20	2,444	113	2,557	0.96						
1923	20	2,662	221	2,883	0.92						
1924	21	2,731	298	3,029	0.90						
1925	22	3,033	378	3,411	0.89						
1926	22	3,173	452	3,625	0.88						
1927	23	3,557	476	4,033	0.88	3,879	213	651	105	5.96	2.03
1928	23	3,960	486	4,446	0.89	5,449	260	963	100	5.66	2.60
1929	24	4,366	485	4,851	0.90	4,988	144	926	59	5.39	2.44
1930	25	4,505	520	5,025	0.90	4,354	239	827	133	5.26	1.80
1931	25	4,529	553	5,082	0.89	3,774	282	894	154	4.22	1.83
1932	25	4,427	869	5,296	0.84	4,520	315	874	159	5.17	1.98
1933	27	4,968	641	5,609	0.89	5,521	345	973	164	5.67	2.10
1934	28	5,250	715	5,965	0.88	5,326	432	938	188	5.68	2.30
1935	30	5,644	770	6,414	0.88	6,772	414	958	169	7.07	2.45
1936	31	6,044	784	6,828	0.89	7,652	485	1013	160	7.56	3.03
1937	34	6,676	834	7,510	0.89	8,421	383	1216	160	6.93	2.39
1938	37	7,529	878	8,407	0.90						
1939	38	8,500	905	9,405	0.90						
1940	40	9,554	946	10,500	0.91						
1941	43	10,814	967	11,781	0.92						
1942	49	12,306	1036	13,342	0.92						

자료: 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諸學校一覽』, 매년판.

이리농림 설립 초기 계획에서는 농업과와 임업과의 제1학년 정원을 각 50명으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업연한 2년의 농업학교 졸업생의 진로로서의 역할를 고려하여 제1학년(농림업과[40])을 한 학급(정원 50명) 만으로 하고, 편입생을 위하여 제3학년(농업과) 한 학급 (정원 50명)을 설치하였다. 1924년도 말에는 초대 편입생들이 이리농림 초대 졸업생으로 되었다. 1924년부터 농업과와 임업과가 각각 제3학년 편입시험을 실시하고 다음해인 1925년에는 제1학년 선발 시에 농업과와 임업과가 각각 시험을 보는 입시제도가 시작되었다. 1927년 이후부터는 제3학년 편입을 중지하고 제1학년 입학(농업과, 임업과)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41]

1925년 4월에 이리농림학교는 전라북도로 이관하고 명칭도 이리관립농림학교에서 이리공립농림학교로 바뀐다.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재정적 상황으로 인하여 채택된 조치였으며, 같은 시기에 관립이었던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리농림학교에 있어서는 전문학교로 승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좌절된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조치였다.[42]

1930년에는 육군현역장교가 배속되면서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일본국내에서는 1925년부터, 조선의 '일본인 학교'에서는 다음해인 1926년부터 실시되었었다. 1930년에 조선의 '내선공학교'에도 적용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43]

1931년에는 수의축산과가 신설되면서 농업과와 임업과와 함께 3과 체제가 된다. 수의축산과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역설한 것은 제2대 교장 야마모토 도라오(山本寅雄)였다. 1920년대 후반에 조선의 농업학교는 대부분이 5년제로 승격하여, 갑종 농림학교로서 이리농림학교의 희소성이 희박해지고 있었던 것에 위기감을 가진 야마모토는, 수의축산과의 증설을 도 당국에 물었다. 도 당국도 그 필요

40) 제4학년 진학 시에 농업과와 임업과로 분리된다.
41) 『益山郡事情』, 16쪽 참조.
42) 稻葉継雄, 「裡里農林學校について－在朝鮮人「內地人」學校の事例研究」, 20쪽 참조.
43) 稻葉継雄, 「裡里農林學校について－在朝鮮人「內地人」學校の事例研究」, 20쪽 참조.

성을 인정하였지만, 총독부의 인허가를 받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1931년 2월, 전라북도 평의회가 건의안 '이리농림학교에 수의축산과를 신설하기 위한 안건'을 결의한다. 이후, 야마모토 교장과 도 간부들의 총독부에서의 의견 절충이 효과를 거두며, 수의축산과의 신설이 결정된다.44)

2. 지원자와 입학생의 출신 지역

앞에 제시한 〈표 4〉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20년대에는 조선전체에서 농업학교 재적 학생수의 총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인 재적 학생 수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피크를 이룬 1930년대 전반에도 10%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후, 전시 하에서 조선인 재적학생수가 급증하고 일본인 비율은 떨어진다. 1927-37년 동안 5년제 농업학교의 지원 시의 경쟁률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의 경우, 2배이거나 3배 정도인 것에 반하여 조선인의 경우는 4배를 넘으면서 최고는 7.5배를 넘고 있다.

제1절에서 보았듯이, 일본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종료 후에 진학 가능한 중등학교는 보통교육, 실업교육 모두 합쳐서 비교적 많은 수가 존재하였다. 그에 반하여 조선인의 경우에는 특히 1920년대 이후에 초등교육 진학자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은 한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농업학교 지원시의 조선인 경쟁률이 높았던 요인 중 하나라고 꼽을 수 있다. 게다가 5년제 농업학교를 졸업하면 판임문관에 임용될 수 있는 중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았다.45)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이리농림학교를 포함하여 농업학교 조선인 졸업생 중에 관공서에 취직하는 비율은 높았다. 관공서 취직자격을 얻는 것을 목표로 5년제 농업학교를 지원하는 조선인이 많았다는 것을 높은 경쟁률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표 5〉는 이리농림학교의 입학(합격)생 수와 경쟁률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

44) 稻葉継雄, 「裡里農林學校について－在朝鮮人「內地人」學校の事例研究」, 20-22쪽 참조.
45) 「東亞日報」 1922.3.7.

1922-25년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비율의 변동의 폭이 컸으나, 이후 거의 반반이 되어간다. '내선공학'이라는 이리농림학교의 '건학이념'은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너무나 커다란 경쟁률 격차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즉, 일본인의 경쟁률은 2배 전후로, 앞에서 제시한 5년제 농업학교의 일본인 경쟁률에 상응하거나 혹은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는 것에 반하여, 조선인 경쟁률은, 앞에서 제시한 5년제 농업학교 조선인 경쟁률인 2-4배를 대폭 웃도는 10-20배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표 5〉 이리농림학교의 지원자 합격자 현황

연도	입학(합격)자			지원자			경쟁률			전북입학(합)		전북비율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1922	27	25	52			185			3.56	18	15	66.7%	60.0%
1923	33	23	56			388			6.93	27	16	81.8%	69.6%
1924	37	21	58			266			4.59	28	13	75.7%	61.9%
1925	48	70	118			461			3.91	39	35	81.3%	50.0%
1926	46	56	102			617			6.05	39	31	84.8%	55.4%
1927	58	54	112			817			7.29	51	25	87.9%	46.3%
1928	53	52	105	115	1,026	1,141	2.17	19.73	10.87	45	21	84.9%	40.4%
1929	53	59	112	116	955	1,071	2.19	16.19	9.56	47	33	88.7%	55.9%
1930	56	56	112	104	953	1,057	1.86	17.02	9.44	44	32	78.6%	57.1%
1931	58	55	113	103	514	617	1.78	9.35	5.46	50	24	86.2%	43.6%
1932	51	51	102	96	615	711	1.88	12.06	6.97	40	26	78.4%	51.0%

자료: 全羅北道益山郡廳,『益山郡事情』(1928), 16-17쪽;『裡里農林學校一覽 (昭和七年度) 』(발행자, 발행년도 불명).

주: ① 제1학년 입학자(농업과(1922년도-), 임업과(1925년도-)에 관한 수치.
② 1922-27년도는 입학자, 28년도 이후는 합격자의 수치.

이리농림학교는 관립학교로 설립될 당시, 조선 전국에서 입학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생 모집을 도청에 의뢰하고 각 도에 선발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일 정도 다른 중등학교보다 먼저 실시하였다. 공립학교에 전환한 이후에도 이러한 방법은 계속되었다.[46] 1922년 설립이후 1932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13개의 도에서 조선인도 일본도 지원자와 합격자로 선발되었다.[47] 단, 전라북도 출신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동일 기간 중, 전북 출신자의 지원자 비율은 일본인 58%, 조선인 40%였으며, 합격자의 전북출신자의 비율은 일본인 77%, 조선인 49%였다. 전북에 이어 수치가 높았던 지역은 인근 지역인 충남과 전남이었다. 이 두 지역의 비율은 합쳐서 일본인 지원자 22%, 조선인 지원자 33%, 일본인 합격자 9%, 조선인합격자 22%였다. 이상의 세 지역만으로 일본인 지원자의 80%, 조선인 지원자의 74%를, 일본인 합격자의 86%, 조선인 합격자 72%를 점하였다.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전북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일본인과 조선인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에 비하여 일본인이 전북에 집중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표 5〉로 돌아가서, 입학생(합격자)을 점하는 전북 출신자의 비율을 확인해 보자면, 조선인의 경우는 40-70%였다는 것에 반하여, 일본인의 경우는 70-90%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조선인의 경우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반하여, 일본인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다.

일본인과 비교하여 조선인은 전북 이외의 도에서 이리농림학교를 목표로 하여 지원하고, 입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등교육을 종료한 조선인에게 있어서 중등학교는 좁은 문이었다. 전국의 도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이리농림학교에 대하여 조선인 지원자가 쇄도하였다. 일본인 초등학교 졸업자

46) 안홍선,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 연구」, 159쪽 참조.

47) 『裡里農林學校一覽』 참조. 1922-1932년 누적으로 최소의 수치를 이룬 도는, 조선인 지원자: 함경북도(20명), 일본인 지원자: 함북(4명), 조선인 합격자: 황해·함북(1명), 일본인 합격자: 함북(2명) 이었다.

에게 있어서 이리농림학교는 이른바, 다수 존재하는 '지역의 중등학교'의 하나에 불과한 위치에 있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안홍선의 연구에 의하면, 1936년의 이리농림 수의축산과 입학생 중에서 조선인의 출신학교(보통학교) 6학년의 평균 석차는 상위 12%였다는 것에 비하여, 일본인의 평균석차는 30%였다.[48] 치열한 수험경쟁을 치룬 결과, 조선인은 일본인 보다 학력이 더 높은 층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이리농림학교 1932년도 재적자 '부형(父兄)' 의 직업

	일본인(총수)	일본인(구성비)	조선인(총수)	조선인(구성비)
농림목축업	87	33.5%	196	79.7%
공업	12	5.0%	1	0.4%
상업·교통업	50	19.2%	15	6.1%
공무·자유업	100	38.5%	33	13.4%
그 외 직업보유자	6	2.3%		0.0%
무직	4	1.5%	1	0.4%
합계	260	100.0%	246	100.0%

자료:『裡里農林學校一覽(昭和七年度)』

〈표 6〉은 1932년 이리농림학교 재적자의 '부형'의 직업을 나타낸 표이다. 조선인의 경우, 농림목축업자가 80%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단, 1930년 국세조사의 직업보유자[49]의 구성비(〈표 7〉)와 비교해보면, 조선 전체나 전라북도의 수치 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고 있다. 그 대신 공무·자유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온다. 조선인 농업자가 그 자제를 진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50]는

48) 안홍선, 「일제강점기 중등 실업학교의 민족 공학제 연구」, 65-66쪽.

49) 이 조사는 개인의 직업에 관한 조사이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세대주인 '부모형제'의 직업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인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의 '무업'에는 '무직' 이외에도 청년 미취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무직'만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전자의 통합계인 '무업'을 계산하지 않았다.

것과 함께 비교적 고학력이라고 사료되는 공무·자유업자가 자제의 중등학교 진학처로 이리농림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인의 경우, 조선 전체에 비하여 전라북도는 남성 직업보유자가 점하는 농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리농림 재적자의 '부형' 중에서 농업자의 비율은 이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주도 포함하여 일본인 농업자–특히 전북 거주 농업자 사이에서 이리농림학교에 자제를 진학시키는 경향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공업이나 상업교통업에 대하여서는 조선 전체 및 전북의 비율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에 비하여, 공무·자유업자에 한하여서는 전북의 비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전북에 있는 일본인 공무자유업자의 사이에서도,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이리농림학교에 진학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7〉 1930년 국세조사에 의한 유업자수 및 구성비

	조선내 민족별 유업자 총수(1,000면)		전북지역 내 민족별 유업자 총수(면)		조선내 민족별 유업자 구성비		전북지역 민족별 유업자 구성비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농수산업	19.4	5,112.0	1,944	388,464	10.7%	82.6%	19.8%	85.1%
광공업	38.3	276.8	1,993	18,784	21.1%	4.5%	20.3%	4.1%
상업교통업	52.8	367.1	3,079	21,990	29.1%	5.9%	31.4%	4.8%
공무자유업	66.4	97	2,586	5,771	36.7%	1.6%	26.4%	1.3%
기타	4.2	337.2	196	21,255	2.3%	5.4%	2.0%	4.7%
합계	181.1	6,190	9,798	456,264	100%	100%	100%	100%

자료: 朝鮮總督府, 『昭和五年國勢調査 全鮮編』 第1卷(1934년), 朝鮮總督府, 『昭和五年國勢調査 道編』第4卷(1933년)

주: ① 직업별 본업인구(남성)의 수치이다. 단 무직은 제외하였다.
② '기타'에는 가정부를 포함하였다.

50) 대구농업학교의 경우, 1935년 종업생 '학부모'의 75%가 농업, 11%가 상업이었다는 것에 비하여, 대구 상업학교의 경우는, 농업 59%에 반하여 상업이 28%였다(안홍선,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 연구」, 151쪽 참조). 두 학교 모두, 입학자는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부형'의 직업이 실업학교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리농림학교 졸업생의 진로와 취직 지역

〈표 8〉 이리농림학교 졸업생 (1924-31년도 졸업생)의 진로(1932년 8월 현재)

		농업과		임업과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졸업자 수(a)		178	121	80	138
취직처	관공서	47	49	32	97
	학교교원	3	6	0	0
	은행·회사·상점	41	21	5	2
	가업종사자	70	41	34	37
	취직자 소계	161	117	71	136
상급학교 재적자(b)		11	1	2	1
입영자		1	0	1	0
사망		5	3	6	1
상급학교 졸업자(c)		10	9	2	2
취직처 구성비	관공서	29.2%	41.9%	45.1%	71.3%
	학교교원	1.9%	5.1%	0.0%	0.0%
	은행·회사·상점	25.5%	17.9%	7.0%	1.5%
	가업종사자	43.5%	35.0%	47.9%	27.2%
	취직자 소계	100.0%	100.0%	100.0%	100.0%
상급학교진학률((b+c)/a)		11.8%	5.6%	2.2%	1.7%

자료: 『裡里農林學校一覽 (昭和七年度) 』에서 작성.

주1: ① 상급학교 졸업생에 대하여서는 졸업 후의 상황이 기입되어 있다. ② 임업과 졸업생은 1926년도 이후.

〈표 8〉은 1932년 시점에서 이리농림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을 보자면, 첫 번째로, 조선인의 경우 농업과와 임업과 모두 관공서에 취직하는 졸업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임업과에서의 그 비율은 굉장히 높았다. 두 번째로, 일본인의 경우는 농업과와 임업과 모두 관공서 취직자보다 가업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세 번째로, 은행·회사·상업에 취직한 졸업생의 비율은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더 높았다. 네 번째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졸업생의 비율은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1935년의 '졸업생 활동 현황'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51] 1910년대의 공립농업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조선인) 중에서 50% 정도가 '관공리'가 되고, 30% 정도가 '농업'에 취직하였다.[52] 〈표 8〉의 농업과와 임업과를 합친 조선인 졸업생의 취직처 비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창회명부」를 이용하여 보다 자세한 취직처를 일람한 것이 〈표 9〉이다. 농업과에서 조선인의 주된 취직처는 관공서 가운데서도 군청이 가장 많으며 군농회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은행회사상점에서는 금융조합(연합회)이 많았다. 일본인의 경우는 군농회, 곡물검사소, 농장에 취직하는 사람이 많았다. '자택'기재자(16명)는 취직자의 3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임업과에서 조선인의 주된 취직처는 군청이며, 이외에 영림서 혹은 사방사무소 등 임업과와 연결이 강한 관공서에 취직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임업과 조선인 졸업생의 취직처로 관공서의 비율이 특히 높았던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자택'기재자는 19%에 머문다. 일본인의 경우는 도청, 사방사무소에 취직하는 사람이 많았다. '자택'기재자는 29%(9명)으로 조선인의 수치보다 높았다.

정연태의 연구에 의하면 강경상업학교 졸업생의 졸업처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은행·회사·상점이 최대의 비율을 점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인데, 일본인의 경우는 취직처에 일반회사가 가장 많았던 반면, 조선인의 경우는 금융조합이 최대 취직처로 그곳에서 '하급실무를 담당'했다고 한다.[53] 또한 안홍선의 분석에 의하면 조선식산은행에서 실업학교 졸업생 채용에 민족별 비율을 두고 내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선인이 높은 경쟁률에 직면했다. 결과적으로 식산은행에 채용된 농업학교 졸업생 중에서 백분비 석차 평균은 일본인 45%인 데 반해 조선인은 18%였다.[54] 〈표 8〉에서 나타나듯 은행회사상점에 취직하는 사람에 주목하면 농업과 조선인 졸업생 중에서 금융조합(연합회)에 취직한 사람은 많은 반면, 일본인의 경우는 식산은행, 조선신탁 및 농장에 취직한 사람이 많았다. 앞서 언급한 조

51) 稻葉継雄, 「裡里農林學校について–在朝鮮人「內地人」學校の事例研究」, 32쪽 참조.
52) 土井浩嗣, 「1910年代の朝鮮における公立農業學校…」, 595쪽 참조.
53) 정연태, 「한・일공학 중등학교 졸업생의 일제하 진로와 해방후 변화」, 142-145쪽 참조.
54) 안홍선, 「일제강점기 중등 실업학교의 민족 공학제 연구」, 76-77쪽 참조.

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차별된 채용 구조의 일면을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9〉 이리농림학교 농업과, 임업과 졸업생(1931-33년도)의 취직처

농업과	조선인	일본인	일본인 종 전북 취직자
도청		1	
군청	13	3	1
면사무소	3		
군농회	7	7	3
농사시험장	2	3	1
영림서		1	
조선철도국		1	1
곡물검사소		5	2
금융조합(연합회)	7		
담배경작조합	2	1	1
수리조합	1		
미곡생산비조사촉탁	1		
동척	1	1	
식은		2	
조선신탁		3	3
농장	1	5	1
그외 기업		4	
공립농업학교	1		
자택	12	16	8
취직자 소계	51	53	21
재학	2	7	
불명	1	1	
합계	54	61	21

임업과	조선인	일본인	일본인 종 전북 취직자
총독부	1		
도청	3	5	1
군청	8	1	
면사무소	3		
세무서	1		
주재소	1		
영림서	6	2	
사방사무소	7	5	2
보호구	2		
모범림 사무소	1		
동대연습림		1	
임업시험장		1	
묘포(만주)		1	
삼림사무소(만주)		1	
조선철도국		1	
금융조합	3		
수리조합	1		
동척	1		
그외 기업	2	2	2
공립보통학교	3	2	
자택	10	9	6
취직자 소계	53	31	11
재학 중	3	7	
입영 중		1	
사망		1	
불명	1	1	
합계	57	41	11

자료: 裡里公立農林學校同窓會, 『同窓會名簿』(1934), 裡里公立農林學校同窓會, 『會員名簿』(1942)에서 작성

주: 「근무처 혹은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된 사람은 '자택'으로 분류하였다.

〈표 9〉에서 나타내는 졸업생 중, 출신지와 취업지를 함께 판별할 수 있는 조선인 졸업생은, 농업과에 46명, 임업과에 51명 있다. 농업과 졸업생 중에서 전북 출신자와 그 이외는 같은 23명이었다. 전북 출신자 중에서 전북에 취업한 사람 및 전북 이외 출신자 중 그 출신 지역에 취업한 사람은 같은 17명이었다. 즉, 농업과 조선인 졸업생의 4분의 3정도는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취직을 하였다는 것이 된다. 임업과의 경우, 전북 출신자와 그 이외는 각각 27명, 24명이었으며, 전자 중에서 전북에 취업한 사람은 12명(44%), 후자 중에서 출신지에 취직한 사람은 16명(67%)이었다. 전북 출신자의 도내 취업의 비율은 농업과에 비하여 낮았으나, 전북 이외 출신자의 출신 지역에서의 취직비율은 농업과와 동일하게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 졸업생은 일본 국내 출신현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출신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표 9〉에서 나타내듯이 전북에 취직한 졸업생은 농업과 21명, 임업과 11명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리농림학교 일본인 입학자(합격자) 중에서 전북출신자는 70-80%를 점하였다. 전북출신자이면서 전북 이외의 지역에 취직한 일본인 졸업생의 비율은 조선인의 경우보다도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전북에 취업한 농업과 일본인 졸업생 21명 중 8명(38%), 또 임업과 일본인 졸업생 11명 중 6명(55%)이 '자택'기재자였다. 전북출신의 일본인 졸업생에 있어서는 자영업(농업경영, 지주경영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상 이리농림학교 졸업생의 취직처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조선인 졸업생의 경우는, 농업과의 경우, 출신 지역의 관공서나 회사(금융조합 등)에 취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임업과의 경우는, 전북 이외의 출신자가 출신도의 관공서에 취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일본인 졸업생의 경우는, 전북출신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 취직하는 사람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단,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전북출신자의 경우가 그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맺으며

이제껏 반복해서 참조해 온『이리안내』에는 '어느 공직자'에 의한 다음과 같은 수기가 기재되어있다.

> 본교의 개설로 인하여 우리 이리는 매년 풍부한 자원과 유리한 선전기관을 얻을 수 있었으며, 토지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학생의 학자금 약 13만엔, 학교 경영비 9만엔은 매년 이리시민의 손에 떨어지는 자원이 되었으며, 내지 각 부현 및 조선 전도에서 모이는 학생과 부형 등은 이리를 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선전기관이 되었다. 이 자원, 이 선전기관은 장래의 대 이리를 건설하기 위한 크나큰 이익이 될 것이다.55)

이리농림학교는 조선 전 지역에서 수많은 조선인 지원자를 모았기 때문에 조선인 지원자에게 '좁은 문' 이었다. 조선인 지원자들은 주로 관공서에 취직하고자 하였고, 조선인 간의 수업경쟁에서 이긴 학업이 우수한 조선인 졸업생의 대부분은 출신 지역에 돌아가서 관공서에 취직하였다. 이리농림학교 조선인 졸업생들과 이리 지역 내지 전북 지역과의 사이에서는 밀접한 관계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것이 이리농림학교가 가지고 있던 특징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신 지역에서의 관공서 취직이라는 '실적'이 각각의 출신지에서 조선인 지원자를 다시 이끄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 '실적'은 이리농림학교의 평가를 높였고, 이리농림학교는 이리를 알리는 '유리한 선전기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식민지적인 행정기구와 경제기구 밑에서는 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조선인의 취업기회가 지극히 한정되었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에서 하급행정직이나 기술직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많은 조선인 학생이 농업학교에 진학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차별구조를 기점으로 하여,

---

55)『湖南宝庫裡里案內』, 58-59쪽.

이리농림학교를 유치한 일본인 대지주들은 이것을 스스로 '유리한 선전기관'으로 활용한 것이다.

한편, 조선인에 비하여 일본인 지원자와 입학자는 전북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일본인 졸업생 중에서 전북에 취직한 사람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며, 도외의 관공서, 민간기업 혹은 농장 등에 취직하였다. 단, 자택에서 일하는 졸업생 중에서는 전북 출신자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전북에 거주하는 일본인 농가와 농장 경영자에게는 이리농림학교는 자신의 후계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할 수 있다.

KCI

참 고 문 헌

1. 1차문헌

朝鮮總督府,『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全鮮編』第1卷 (1934)

朝鮮總督府,『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道編』第4卷 : 全羅北道 (1933)

朝鮮總督府內務部學務局,『朝鮮人教育實業學校要覽』(1914)

朝鮮總督府學務局,『朝鮮諸學校一覽』매년판

裡里公立農林學校同窓會,『同窓會員名簿』(1934)

裡里公立農林學校同窓會,『會員名簿』(1942)

裡里公立農林學校校友會,『裡里公立農林學校沿革寫眞帳』(1936)

韓國農村經濟硏究院,『農地改革時被分配地主 및 日帝下大地主名簿』(1985)

木原壽,『益山郡事情』(1928)

紫藤義雄,『朝鮮施政二十年史』(朝鮮商工新聞群山支社, 1930)

東亞經濟時報社,『朝鮮銀行會社要錄』各年版

東亞經濟時報社,『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各年版

山下英爾,『湖南宝庫裡里案內』(1927)

全羅北道敎育會,『全羅北道敎育及宗敎要覽』(1938)

(發行者不明) ,『裡里農林學校一覽 (昭和七年度) 』(發行年不明)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新聞」

「東亞日報」

2. 단행본

오성철,『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교육과학사, 2000)

3. 논문 및 기타

고석규, 「近代都市 木浦의'有志'와 木浦高等普通學校 설립운동–기대와 현실의 간격」, 『한국사연구』109 (2000)

안홍선, 「일제강점기 중등 실업학교의 민족 공학제 연구」, 『교육사학연구』25-1 (2015)

_____,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의 성격 연구–실업학교 학생 특성과 입학동기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16-2 (2015)

_____, 「식민지시기 중등 실업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박지원, 「1910년대 일제의 중등 농업학교 운영과 조선인 졸업생의 진로」, 『역사교육』130 (2014)

정연태, 「한·일공학 중등학교 졸업생의 일제하 진로와 해방후 변화–충남 강경상업학교의 사례」, 『한국문화』60 (2012)

_____, 「일제강점기 한·일공학 중등학교의 관행적 민족차별–충남 강경상업학교의 사례」, 『韓國史研究』159 (2012)

土井浩嗣, 「1910年代の朝鮮における公立農業學校–植民地期朝鮮の勸農体制と關連して–」, 『동북아문화연구』10 (2007)

稻葉継雄, 「裡里農林學校について–在朝鮮人「內地人」學校の事例研究」, 『國際教育文化研究』9 (2009)

〈국문초록〉

식민지 조선의 농업학교와 지역사회
-이리농림학교(裡里農林学校)를 대상으로-

마츠모토 다케노리

이 논문은 1922년 전라북도 익산군에 설립된 이리농림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설립과정과 지원자, 입학생, 졸업생에 착목하여 이리농림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리농림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이리를 중심으로 익산군에 거주하는(혹은 농장을 소유하는) 일본인 대지주뿐 아니라, 도내 평야지대에 거주하는(혹은 농장을 소유하는) 일본인 대지주들이 깊이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경제력(기부)과 정치력(청원)을 구사하면서 이리에서의 유치를 실현하였다.

설립 후에는 이리농림학교는 조선 전 지역에서 수많은 조선인 지원자를 모았기 때문에 조선인 지원자에게 '좁은 문'이었다. 조선인 지원자들은 주로 관공서에 취직하고자 했고, 학업이 우수한 조선인 졸업생의 대부분은 출신 도에 돌아가서 관공서에 취직하였다. 그 '실적'이 각각의 출신지에서 조선인 지원자를 다시 이끄는 효과로 기능했다. 그리고 그 '실적'은 이리농림학교의 평가를 높였고, 그 결과 이리농림학교는 이리를 알리는 '유리한 선전기관'이 되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식민지적인 행정기구와 경제기구의 밑에서는 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조선인의 취업기회는 한정되었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에서 하급행정직이나 기술직으로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많은 조선인 학생이 농업학교에의 진학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차별구조를 기점으로 하여

이리농림학교를 유치한 일본인 대지주들은 이것을 스스로 '유리한 선전기관'으로 활용한 것이다.

조선인에 비하여 일본인 입학자는 전북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일본인 졸업생들은 도외의 관공서, 민간기업 혹은 농장 등에 취직하였다. 단, 자택영업자 중에서는 전북 출신자 비율이 높았다. 전북에 거주하는 일본인 농가와 농장 경영자에게는 이리농림학교는 자신의 후계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주제어 : 이리농림학교, 중등학교, 실업학교, 경쟁률, 진로

KCI

<Abstract>

Vocational Secondary Educational Schools of Agriculture and Regional Societies in Colonial Korea: A Focus on the Iri(裡里) Agricultural and Forestry School

Matsumoto, Takenori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Iri(裡里) Agricultural and Forestry School, which was established as a secondary educational school in 1922 in Iksan(益山) County, North Chŏlla Province, analy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and local societies and emphasizing the process of its founding and its applicants, enrollees and graduates.

Both Japanese large-scale landlords residing in and/or owing land in Iksan County and Japanese residents in the plain area of North Chŏlla Province other than Iksan County were interested in founding the school. They mobilized their political power through petitions and their economic power through donations and eventually achieved the founding of the school.

The school collected applicants from all of the provinces of Korea, and many Korean students applied to attend. Only those who had excellent school records could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Most of the Korean applicants wanted to be public officials after

graduation, and many of the Korean graduates actually became public officials in their hometown province. This achievement enhanced the reputation of the school, and as a result, the school could continuously expect excellent applicants from all over Korea. In this process, the school played a role in promoting the presence of the town of Iri.

Korean secondary school graduates faced difficulties in finding jobs due to the discriminatory structure of the job market in colonial Korea. For this reason, many Koreans applied to vocational secondary educational schools, including agricultural (and forestry) schools, aiming to obtain positions as low-ranking public officials. Japanese landlords in Iri made use of this discriminatory structure under the colonial rule to promote the town of Iri.

Compared to the Korean enrollees, the ratio of those from North Chŏlla was higher among the Japanese enrollees. Japanese graduates took jobs as public officials and with private companies and farm land management companies located outside North Chŏlla. Only in the case of those who took jobs at home, the ratio of those from North Chŏlla was high. From the perspective of Japanese farmers in North Chŏlla, the school played a role in providing vocational education to their successors.

Key words: Iri(裡里) Agricultural and Forestry School, Secondary Educational School, Vocational Education, Acceptance Rate, Career Path

KCI

투고일 : 2016년 7. 14 / 심사일 : 2016년 7. 25 ~ 8. 05 / 게재확정일 : 2016년 8. 18

필자소개 : 마츠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 1988년 3월 도쿄대학 대학원 농학계연구과 농경제학 박사 2007년-현재 도쿄대학 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교수.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저가 있다. 마쓰모토 다케노리 지음, 윤해동 옮김, 『조선농촌의 식민지 근대경험』(논형, 2011); 松本武祝,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と河川水利用秩序の改編－參禮伊藤農場の事例－」, 『한일관계사연구』 51(2015); 松本武祝, 「植民地朝鮮における河川改修事業をめぐる「公共性」－全羅北道 · 万頃江を事例として－」, 『日本植民地研究』 27(2015).